



보도 일시	2023. 1. 18.(수) 17:10	배포 일시	2023. 1. 18.(수) 15:3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 장 윤범식 (044-215-5740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형 (kminh@korea.kr) 사무관 김나현 (nahyun5959@korea.kr)

## 최상대 제2차관,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

-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지역주도, 인적·물적자원 확보, 거버넌스 개선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 필요
-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은 교육, 대학교육의 자율적 혁신 지원

-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.18(수)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에서 ‘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’을 강연하고, 원주시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 내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방문하였다.
  - 이번 방문은 지난해 9~10월경 비수도권 전 지역을 방문\*한데 이어 강원, 전북, 경북 등 인구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찾는 자리이다.
  - \* (9.22) 전남·전북 (10.7) 경남·경북 (10.13) 충남·충북 (10.19) 강원

### 【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 강연 】

- 최 차관은 강연을 통해 새정부의 지역경제발전 비전은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가경제 성장도 없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되며,
  -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①지역 주도의 특화 전략 수립, ②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, ③지역 핵심 인프라 구축, ④지역내·지역간·중앙-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 개선을 제시하였다.
- 특히, 최 차관은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(hub)으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금년에 신설되는 총 9.7조원의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\*하고
  - \* 일반 재정지원 : ('22) 1.0 → ('23) 1.4조원

-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(RISE)\*로 단계적 개편하여 ‘지역 인재 양성 - 취·창업 - 정주’로 선순환하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- \* 교육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로,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, 규제완화,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투자 등 추진(Regional Innovation System & Education)
- 또한,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\*, 지방소비세 인상\*\*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\* ('22) 0.75 → ('23) 1.0조원    \*\* ('22) 23.7 → ('23) 25.3%

## 【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 방문 】

- 최 차관은 강원도의 특화 발전 지역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방문하여 의료기기 산업현장을 둘러보고,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.
- 참석자들은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지역 주도로 기업-대학-연구소-지자체의 꾸준한 교류·협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으며, 향후 이와 같이 지역 주도로 성장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하였으며
- 최 차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자율사업(시도 포괄보조)을 확충\* 하는 등 지방시대에 지역주도 발전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.
- \* 시도 포괄보조사업 대상유형 확대: ('22) 13 → ('23) 24개

## 【 향후 현장방문 계획 】

- 최 차관은 금번 강원도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.31(화)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강연하고, 군산시 새만금 입주 기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.
- 2.15(수) 오전에는 안동시 경북도청에서, 오후에는 포항시 포스텍에서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강연하고, 지역기업을 둘러볼 계획이다.